‘공의·공감·공심’으로 불교 도약 이끈다

총무원장 후보 주요 공약은?
기호 3번 진우 스님

- 승려복지 확대로 수행 기반 조성
- 불교문화 콘텐츠 활용 재정 확보
- 정신문명 이끌 선명상 세계화 박차
- 청년 맞춤 체험형 포교 개발 · 운영
- 분담금 감면으로 교구 자치 지원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진우 스님은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취임 이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사진은 2025년 6월 22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사회적 약자 초청 법회’에서 참가자와 악수하는 모습.



2024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제선명상대회에서 진우 스님과 세계적인 명상지도자들이 5분 선명상을 하는 모습.



진우 스님은 지난해 4월 하동 쌍계사에서 열린 ‘나는 절로’에 참석해 참가자들의 인연 찾기를 응원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진우 스님이 ‘공의·공감·공심’을 바탕으로 차기 종단 운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수행자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종단 재정을 안정시키고, 선명상과 K-불교문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전법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다. 여기에 중앙의 권한을 교구로 이양해 종단과 교구가 협력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도제 양성과 대사회 활동까지 종단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진우 스님이 제시한 차기 종단 운영의 방향은 크게 ‘수행 기반 강화’, ‘불교의 대중화·세계화’, ‘종단 운영의 분권화’로 압축된다. 그중에서도 전 종도를 대상으로 한 기본수행비와 승려 완전복지,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 방안은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본수행비로 안정적 수행 환경 조성

진우 스님은 전 종도를 대상으로 기본수행비를 지원하고, 출가부터 열반까지 교육·주거·의료·요양을 책임지는 ‘승려 완전복지’를 추진한다. 기본적인 생활과 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종단이 보다 폭넓게 책임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수행자가 생활 여건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수행과 종무, 전법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종단 차원의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기반이 마련되면 출가자 감소로 인한 승가의 지속가능성 문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 수행과 교육, 포교와 전법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종단이 수행자의 삶을 책임진다는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수행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진우 스님이 기본수행비 지급과 함께 종단 재정 확충과 불교사업 활성화를 중점 과제로 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 종단 재원에 의존하기보다 기부와 불교사업을 확대하고 불교문화 콘텐츠를 다각화해 수익 창출, 종단 재정 안정, 기본수행비와 승려복지 확대, 수행·전법 기반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불교 전통문화 굿즈의 생산·유통·판매, 불교 콘텐츠의 유료 상품화, 유휴자원 활용 등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선명상, ‘K-마음운동’으로 발전

진우 스님은 그간 국민의 마음 평안을 위해 대중화에 힘써온 ‘선명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적 ‘마음운동’으로 확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앞서 4년간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양성, 국제선명상대회 개최 등을 통해 선명상을 알리고 대중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앞으로는 이를 ‘K-선명상’과 ‘K-마음운동’으로 발전시켜 한국불교의 정신문명을 세계화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사회에서 불안과 스트레스 등 마음의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명상을 통해 현대인의 마음을 돌보고 불교의 수행 전통이 가진 정신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선을 기반으로 한 선명상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인다. 담선대법회를 정례화해 일반 국민도 쉽고 친근하게 간화선의 진수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명상센터를 설치·운영해 선명상의 효과와 보급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전문 지도 인력을 양성해 선명상을 체계적으로 보급할 기반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선명상 전문가와 세계 석학들이 참여해 선명상의 가치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선명상 컨퍼런스를 열어 한국 선명상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선명상 담론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폭넓은 전법으로 불교 접점 확대

‘힙한 불교’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전법의 접점을 넓힌다. 특히 청년층의 호응을 얻은 포교 프로그램은 확대하고, AI·뉴미디어 등 변화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전법 방식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나는 절로’, ‘청년밤心’ 등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역별 군포교 지원사찰을 지정해 지역과 군부대의 전법 기반도 강화한다.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에 맞춰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인 신행과 불자화로 연결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AI와 SNS 등 뉴미디어도 적극 활용한다. 청년 전법 인재를 양성하고 AI·뉴미디어 포교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불교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한다. 불교를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포교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전법으로 변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불교문화 역시 전법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는다. 연등회와 템플스테이, 불교박람회 등 대중의 관심을 얻고 있는 불교문화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교와 만나는 계기로 잇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 국제교류를 통한 K-컬처 지원 확대 △연등회 세계적 문화축제 위상 확보 △템플스테이 전문인력 양성 △불교박람회 규모 및 개최 지역 확대 △불교문화진흥 전승관 건립 등을 추진한다.

교구 권한 이양으로 함께하는 ‘종단’

진우 스님은 종단 중앙의 권한을 교구로 이양하고 교구의 자율성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교구가 지역 포교와 지역사회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중앙은 정책과 지원에 집중하고, 교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법과 문화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중앙과 교구가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현안을 지속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주지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한다. 우수 종무원을 선발해 교구본사에 파견하는 종무원 순환근무제도 도입해 중앙과 교구 간 연계도 강화한다.

교구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마련한다. 중앙분담금을 점진적으로 감면해 교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종무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돕는다.

특히 교구별 특성과 강점을 살린 ‘특화도량’ 지정이 눈에 띈다. 각 사찰과 교구가 가진 자원과 역량에 맞춰 불교문화 전승 중심 도량과 청년불교 상징 도량 등을 지정해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교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역량을 키우고, 그 성과를 종단 전체로 확산하는 방식을 통해 ‘교구와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종단 운영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선거제도 개선 · 사회적 역할 강화

이와 함께 종단의 제도 개선과 승가의 미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종책도 제시됐다.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종무행정 참여 확대에 힘을 쏟는다.

체계적인 승가 도제 양성과 교육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각계 전문가를 영입한 한국불교연구소를 설립하고 온라인 승려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본사별 단기출가학교 운영을 지원해 출가자의 교육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대사회 활동에서는 일회성 자비나눔을 자립형 자비나눔으로 전환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확대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넓힌다.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도 진력한다. 전통사찰 경내지와 건축물의 종교목적 활용 합법화, 문화재 관람료 감면 제도 보완, 재난 유형별 방재 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지원 및 문화유산 유지보수비 자부담 감면, 사찰림 공익 가치 실현 등을 통해 사찰이 지닌 문화·사회적 기능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진우 스님은 37대 총무원장으로서 종단을 직접 이끌며 선명상과 불교문화 등을 통해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분명한 강점이다. 그러나 38대 선거에서 다시 한 번 종도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임기의 성과를 넘어 종단이 당면한 과제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틱낫한 스님의 『안반수의경』 해설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 있어요!

불교 수행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수행인 수식관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나파나사티 숫타(안반수의경)』를 틱낫한 스님이 쉽고도 현대적으로 해설하였다.

틱낫한 지음, 허우성 옮김/국판변형/192쪽/값 14,000원

교실에서 붓다의 가르침 실현하기

불교로 가르치다

붓다의 대화법과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교육 실천서로, 일방 주입식 교육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시드 브라운, 신희정 옮김/신국판/320쪽/값 22,000원

불교와 서양 심리학의 만남

새로운 불교심리학

12개국 38명의 저자가 서양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과 불교의 실천적 지혜를 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심리학 모델과 이론을 소개하는 기념비적인 책이다.

모리츠 키 외 편집, 윤희조·박재은 옮김/신국판/872쪽/값 5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